

# 이 글로부터 조금의 도움이라도 받으실 수 있다면

## 이 서 영

- 전주한일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재학 중
- 2021년도 5급 공채 일반행정직 합격

## I. 들어가며

수험생활 기간에 막막할 때마다 합격자들의 수기를 보고 도움을 많이 받아서 부족하지만 수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부 방법을 알기 위해 이 글을 읽는 분이든, 공부 중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려 이 글을 읽기 시작한 분이든 이 글로부터 조금의 도움이라도 받으실 수 있다면 제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달성한 것입니다.

저는 2019년 여름에 진입을 결정하고, 2019년 9월부터 수험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년에서 1년 반 만에 붙는 분들도 보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어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적어도 2년은 공부하는 것을 전제로 글을 썼습니다. 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경제학 베이스가 없는 분이라면 일반행정 직류 기준으로 2년은 전제하고 공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II. 과목별 공부법

### 1. 제1차시험

#### (1) PSAT 전반

제가 초시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① 안정적인 PSAT 점수 만들기와 ② 경제학 그리고 ③ 행정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정적인 PSAT 점수 만들기가 지상 과제였습니다. 저는 재시를 염두에 두고, 초시 때 1차를 안정적으로 통과해서 재시 때는 1차시험 준비 기간을 1~2개월 내로 단축시키려 했습니다.

실제로 초시 때는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개월간 1차 시험을 준비하는 게 저의 본래 계획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시험이 연기되면서 4월, 5월까지도 1차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어긋난 것이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1차시험 공부를 많이 해둔 덕에 초시와 재시 모두 합격선보다 10점 이상 높은 점수로 안정적으로 1차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1월까지도 PSAT과 경제학, 정치학 공부를 병행할 정도로 2차시험 준비 시간을 벌었습니다. 여하튼 그만큼 초시 때에는 1차시험 공부에 매진해서 1차시험 성적을 안정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2) 언어논리영역

언어논리는 기출문제 및 리트 언어논리 지문 등을 활용해서 대비했습니다. 다른 과목의 경우 강사님들의 모강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과 달리, 언어논리는 모강에 대한 아쉬움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특히 기출문제를 풀어야만 갖게 되는 특정한 사고체계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언어논리의 경우, 다른 과목에 비해 기출문제를 허비하지 않고 아껴 풀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아껴 풀다는 것은 조금만 풀라는 것이 아니라, 공부가 덜 된 상태에서 무작정 양치기를 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의미입니다. 양치기보다는 공부를 거듭하면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년도 별로 풀어나가고, 시험장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에

서 매번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논리퀴즈 문제는 실제 1차시험에서는 사실 모의고사, 강사 모의고사보다 훨씬 고난도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20년도에는 순서대로 문제를 풀었는데, 실전에서 논리퀴즈는 모강 수준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2021년에는 맨 마지막에 논리퀴즈를 풀었습니다. 이 방법 덕에 시간 관리가 비교적 용이했습니다. 이외에도 논리퀴즈를 대비할 때는 입법고시 기출문제에서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 (3) 자료해석영역

자료해석은 기본강의를 수강했고,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료해석은 어떤 선생님이든 한 분을 정해서 기본강의를 듣고 접근법을 익히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언어논리 등에 비해서 익숙한 유형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 강의를 통해 새로운 풀이법을 익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자료해석에 처음 접근할 때 시간의 압박 탓에 급하게 문제를 풀다 보니 문제 조건을 놓치거나 사소한 계산 실수로 인해 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풀다 보니 표나 그래프를 대할 때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실수도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해석은 소위 '양치기'로 공부한 편이었습니다. 기본강의 수강 이후에는 시중에 있는 거의 모든 자료해석 모강을 풀어보았고, 부족하다 느껴지면 작년, 재작년 모강도 구해서 풀어보았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방법이 비효율적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모강에서 실수했던 함정을 2020년도 실전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었고, 이 문제 이후에 더

욱 탄력을 받아 다른 문제를 여유롭게 풀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치기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고, 2021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를 많이 풀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자료해석에서 자주하는 실수들은 A4에 따로 적어 정리했고, 오답정리는 따로 노트를 만들지 않되 틀린 문제들을 그 페이지만 뜯어내 반복적으로 보려 했습니다. 상황판단도 같은 방식으로 공부했고, 시험장에는 이 종이들만 가져가서 시험 시작 전에 반복적으로 봤습니다.

#### (4) 상황판단영역

1차시험 자체가 시간의 압박이 큰 편인데, 그 중에서도 상황판단은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과목과는 달리, 상황판단은 실전에서 40문제를 모두 풀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퀴즈형 문제 중에서는 저의 능력 상으로는 3~4분 이내에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매번 있었기에, 문제를 골라 푸는 방식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법 조문형 및 설명문형 ②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문제 ③ 매칭형 문제(甲은 여성이면서 요리사이고~) 등 문제는 1순위로, ① 甲과 乙의 게임 문제 ② 토너먼트 문제는 2순위로 풀었습니다. 이렇게 풀고 시간이 남으면 최소·최대 문제, 퍼트형 문제, 낱자 및 시차 문제 등을 풀었습니다. 문제 푸는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시한 기준은 '일단 시간을 들인다면 맞힐 수 있는 문제인가'였습니다. 이를테면 매칭형 문제는 일정한 시간을 들여 답을 구하면 정답을 맞힐 확률이 높지만, 최대·최소를 구하는 문제는 시간을 많이 들여 답을 구해도 작은 실수로도 답을 틀릴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를 검산으로도 알기 어렵기에 가장 마지막에 풀었습니다.

그리고 법조문형 및 설명문형은 기출문제와 모강을 반복적으로 풀어 나가면서 정확하고 빠르게 답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또 퀴즈형의 경우 일단 풀기로 결정했다면 정확하게 풀어나가려 노력했습니다. 퀴즈형은 시간의 압박을 느끼고 나면 오히려 안 풀리는 경우가 많기에, 일단 풀기로 결정한 문제라면 최대한 침착하게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실전에서는 법조문형이나 설명문형에서도 가끔 답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럴 때 그냥 체크해 두고 넘어갔습니다. 물론 짹짹하긴 하지만, 그런 문제에서 시간을 끌다가 페이스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에는 마킹까지 끝났는데 2~3분가량이 애매하게 남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 시간을 활용해서 종전에 체크해 둔 문제들을 다시 보았고 대부분 답이 다시 잘 찾아졌습니다.

한편 상황판단을 혼자 공부할 때, 세월아 네월아 복습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시 때 어차피 실전에서 손대지 않을 어려운 문제들을 오답정리하면서 시간을 허비한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이 문제를 잘 풀게 되더라도, 어차피 실전에서는 다른 39문제와의 관계 속에서 90분 내에 푸는 것이 중요하기에 오랜 시간을 들여 오답 정리를 해야 하는 문제라면 오히려 과감하게 넘어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 2. 제2차시험

### (1) 경제학

저는 진입 당시에 경제학 베이스가 전무해서 경제학 공부에 특히 애를 먹었습니다. 특히 배운 내용에 대한 휘발성이 너무 강하다는 것

이 큰 문제였습니다. 1순환 때 이해한 내용을 2순환 기간에 와서 보면 또 이해하지 못하는 식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을 이해만 하고 넘어가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 다시 공부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해했는지 이해한 과정을 예비순환~1순환 기간에 모두 정리해 둘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개념이 어느 정도 이해 되면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연습책을 여러 번 풀었습니다. 연습책을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1회 풀고, 1월부터 2월까지 어려운 문제만 선택적으로 푸는 식으로 두 번 풀고, 3순환 기간에 한 번 더 풀었습니다. 이외에도 step1, 2와 120제 등 다른 문제집과 순환별 강사 모의고사도 활용하며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려 노력했습니다.

경제학의 경우 흔히들 답을 맞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역시 그 말에 공감합니다. 다만 2021년처럼 문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답을 정확히 맞히지는 못하더라도 풀이 과정에서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중적인 답안 작성 훈련을 통해 정답뿐만 아니라 개념 및 풀이를 정확하게 전개해나가는 연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 행정법

행정법에서는 쟁점을 정확히 찾고 사안을 포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답안지를 꼭 채워도 쟁점이 틀렸다면 낮은 점수를 피하기 어려우니 최대한 다양한 판례를 접하면서 쟁점 찾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안 포섭에서는 꼭 포섭의 결론이 판례와 같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의 논리를 갖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판례와 결론은 같지만 논거가 없는 답안

과 판례와 결론은 다르지만 논리적인 근거를 2~3개 든 답안이 있으면 후자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초시 때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행정법이었는데, 막상 실전에서 40점대의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때 기본적인 암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느끼고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사례집 풀이 및 핸드북 암기 스테디를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기간에 행정법 실력이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핸드북만 무작정 암기하기보다, 답안작성과 병행해서 실제 사례에서 쟁점을 찾고 사안 포섭까지 부족하게나마 하려고 했던 것이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핸드북 암기를 기반으로 사례집을 공부해 놓아서 이후엔 목차만 간략히 쓰고 사안 포섭만 연습하면 되어서 3순환 기간 동안에 행정법 공부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단권화는 따로 노트를 만들지 않고 핸드북에 했습니다. 핸드북에 기본적인 내용이 다 써져 있고 그걸 모두 외우니 단권화용 책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쟁점별로 자주 하는 실수나 기억해야 할 내용을 핸드북 상단에 빨간 펜으로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2차시험 직전에는 빨간 펜 부분과 최신 판례만 보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 (3) 행정학

행정학은 기본적인 암기와 그를 활용한 답안 작성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비순환과 1순환을 들을 때까지는 대부분의 행정학 개념들이 당연하게만 느껴지고 외워지지 않아 행정학 과목 자체에 대한 회의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순환, 1순환 때 작성한 서브노트를 기반으로 개념을 암기하고 답안을 작성하면서 행정학 개념 간 차이를 느

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떤 개념에 대한 이론/학자/사례를 함께 외우다 보면 개념마다 뜻하는 바가 보다 명확해지고, 답안지 역시 훨씬 더 구체성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순환 기간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행정학 답안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가 범한 가장 큰 실수는 답안지를 다 채워야 한다는 압박감에 키워드는 없으면서도 분량만 많은 답안을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고답안이나 합격생들의 답안을 참고하면서 중요한 건 분량보다는 가독성과 구체성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차의 활용과 키워드였고, 답안을 작성할 때마다 핵심 키워드를 포함해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행정학은 정치학에 비해 강사님들의 모의고사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기출문제 역시 중요하지만, 과거(2010년대 초반 이전)의 기출들은 단순히 어떤 개념에 대한 숙지 여부를 묻는 것에 반해 최근의 경향은 하나의 완성된 '행정학적 글'을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되어, 최근 기출들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경제학이나 행정법처럼 하나의 답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에, 가능한 최고답안 등을 활용해서 실력자들의 답안을 벤치마킹하려 노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키워드, 사례들 중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제 서브노트에 정리하면서 실제 제 답안에 현출하려 노력했습니다.

#### (4) 정치학

정치학은 수험기간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확립된 공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순환 강의를 들으면서 서브노트를 정리하고자 했으나 내용이 너무 방

대한 나머지 끝내 완성하지 못했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정치학에 적은 시간을 투입한 탓에 기출문제를 완벽히 풀어보지는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다만 만약 공부를 더 하게 된다면 단행본 읽기, <핵심정치학> <정치학연습> 같은 기본서 독과 및 단권화, 행/입시 기출답안 스터디를 더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비교정치 분야가 50점 분량으로 출제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비교정치 분야만이라도 세세하게 단권화하고 나머지 분야는 기본서를 여러 차례 읽고 기출문제에 나온 쟁점 및 최근 현안들 위주로 보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5) 선택과목(지방행정론)

선택과목은 다들 공부를 등한시하는 측면이 있어서 열심히 준비할 경우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순환 기간이 시작되는 3월부터 스터디를 조직해서 진도별로 매주 공부했습니다. 스터디는 기본서 한 권을 진도별로 숙지해 백지에 적어보고, 해당 파트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한 사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선택과목 3순환 기간에는 강사 모의고사를 함께 풀었습니다. 선택과목은 자율적으로는 거의 안 하게 되니 이런 식으로 스터디를 조직해 매주 조금씩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선택과목 3순환 기간이 되어도 선택과목에만 치이지 않고 다른 과목도 균형 있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행정론이란 '지방자치법에 대한 해석'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크게 공감합니다.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모두 외우고, 항상 관련 내용이 나오면 답안에 조문을 병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특별법 등 관

련법들을 조문 형태로 정리하고 모두 외웠습니다. 그래서 2021년 1문의 기관구성 다양화, 2문의 개정 지방자치법에 모두 관련 법 조문을 함께 쓸 수 있었고 그것이 고득점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IV. 기타 사항

##### 1. 시험 직전 답안 작성

시험 직전에는 출제확률이 상당히 높은 주제들이 몇 가지 추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2021년 행정법의 1문(인허가의제), 경제학의 1문(정보경제학), 정치학의 3문(코로나와 국제정치), 지방행정론의 1문(기관구성 다양화), 행정학의 1문(부패, 이해충돌)과 같은 주제들입니다. 저는 시험 직전에 해당 주제들에 대한 답안을 미리 작성하거나 관련 파트를 집중적으로 봄으로써 실제 시험장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꼭 준비한 대로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여러 방향으로 답안을 작성해 보면 실제 시험장에서 해당 내용을 상기하고 답안을 구상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만 공부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보다는 시험이 1~2주 내로 임박하면 무리하게 안 보던 부분을 보기보다는 나올 확률이 높은 것에 집중해서 답안작성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2. 스터디 활용

스터디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공부하는 게 더 적합한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의지가 그리 강하지 못한 편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야 긴장감으로 인해 학습 효과가 높아지는 편이어서 스

터디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경제학 연습책 풀이 스터디, 행정법 암기/사례 스터디, 지행 스터디, 기상스터디 등등을 활용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모여서 목표를 설정하면 혼자 할 때보다 의욕을 덜 소진하게 되어 슬럼프를 비교적 덜 겪게 되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 3. 체력관리

저는 운동을 하고 나면 오히려 더 피곤한 것 같아 따로 운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1차 준비 기간까지는 관찮았는데, 3순환 기간에 체력적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이때 운동을 주기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은 3순환 기간에도 하루에 7시간은 잤습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덜 자서 공부시간을 벌더라도 오전이나 낮에 졸거나 집중력이 저하하면 결국 소용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때 충분히 자고, 공부시간에 거의 졸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 V. 나가며

진부한 말이지만, 합격자가 100명이면 100명의 공부방법이 있다는 말처럼 사람은 각자 다르기에 공부방법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수험생 때 합격생 분들로부터 조언을 들을 때 그 내용들이 상충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내 방식대로 공부해서 그 방법을 내 합격수기에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역시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참고사항으로서만 저의 합격수기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